홍윤식 교수는 … 1934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다. 해인농림고교를 나와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불교대 문학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3년부터 1986년까지 원광대 국사교육학과 교수를,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동국대 박물관 관장, 문화예술대학원장, 서울국악예술고 교장,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위원,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민속학회 회장 등으로 있다. 제21회 포교대상 공로상, 제2회 박헌봉 국악상 등을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행하는 일이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부득이 받은 임금을 내놓고 나머지는 사재로 충당해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홍 교수는 “하지만 이 조사에서 얻은 것이 많았다”며 “단청뿐만 아니라 많은 불화를 보는 안목을 갖게 해줬으며 불화를 중심으로 한 불교미술 학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불교미술가 등용문, 불교미술공모전의 탄생

단청문양조사사업의 실패 이후 홍 교수는 대내적으로 불교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현재 불교계 미술인의 등용문인 ‘불교미술공모전’의 개최였다.

“기획 이후 역시 문제는 재정문제였어요. 1969년대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문화사업에 기부하는 인사는 극히 한정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스님도 아니고 종무원의 양복쟁이가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죠. 마침 조계종 신도단체로 ‘관음클럽’이 있었습니다. 불교신도로 정치계와 경제계 인사의 부인들로 구성된 모임이었어요. 이런 인연을 살려 故김성곤 쌍용회장 등을 찾아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선정과 기준 등을 마련해 마침내 불교미술공모전이 열리게 됐으니 1970년 여름의 일이었다.

홍 교수의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국대 사범대에 미술교육학과 설치 추진을 불교대학 내에 미술학과 설립으로 이끈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의 탄생이었다. 문화재관리국의 인맥과 영향이 큰 홍 교수의 역할이 컸다.

인드라망의 세계, 보현행원으로 풀 것

“당시 이런 경위로 설치되고 나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수가 되려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불교미술공모전과 불교미술학과 설치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돌아온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한다는 비방이었습니다. 인연이 여러모로 다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어 품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홍 교수는 그 것이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유학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36세의 나이에 교토불교대학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홍 교수는 불교사와 불교문화사, 불교사상사를 공부하고 문학석사와 박사를 취득해 돌아왔다.

“일본은 실제 생활을 바탕에 두고 불교의례와 의식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불교가 하나의 문화로 완연히 자리잡고 있었기에 한국에서도 불교문화가 사람들의 의식에 자리잡고자 하겠다는 원력이 컸어요.”

홍 교수는 귀국해 원광대에서 미륵사지를 연구하는 ‘마한백제문화연구소’를 설립해 국내활동을 전개하며 교수로의 길을 걷는다.

1987년 동국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홍 교수는 같은 해 4월 문화재위원회 개편에 맞춰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다. 전문위원 20여년을 거쳐 50대 초반의 나이였다. 홍 교수와 ‘범패’와의 인연은 여기서 다시 이어진다. 바로 ‘영산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보유자를 어떻게 발굴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대체로 태고종 측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계종은 장엄 기능을 지닌 정순정 스님이 있었어요. 영산재의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영산재가 지닌 문화요소가 새롭게 주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는 1989년 동국대 박물관장을 맡아 고려불화전을 개최하고 강화 선원사 대장경 판각지 조사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1999년 퇴임한 홍 교수는 2000년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에 교장으로 4년간 활동했으며 일본 수학의 인연으로 동국대에 일본학연구소를 세워 한일관계 개선 등에도 앞장섰다.

홍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시시각각 고통과 역경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힘을 얻게 합니다. 큰 원력을 세우고 그에 맞춰 끊임없이 정진하다보면 그 것이 힘이되어 인연이 닿아 이뤄지게 되있어요. 스스로 원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러한 삶을 보현행원으로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족한 역량으로 학문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조명기, 안계현, 황수영 선생님을 비롯해 류가이, 마키다 타이료 선생님 등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인드라망으로 이어져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남은 인생은 보현행원에 의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나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해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선일보 西紀1965年1月29日(金曜日)

빛을본 佛歌의 元祖 梵唄

唯一한 繼承者 金龍雲스님 찾아내

1965년 1월 조선일보에 소개된 홍윤식 교수와 김운공 스님의 범패 기사

대한불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불교미술 공모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주최

5월10일부터 20일간 신문회관서

불교미술의 창의력 고취

불교문화예술인의 개발위해

1970년 2월 대한불교에 보도된 불교미술공모전 개최 관련 기사

전법일기

인연은 돌고 돌으니 ‘필연’

군에 있으니 인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많아진다. 특히 신병교육대대가 있는 부대 법당에서는 매 기수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인연의 흐름이 잠시도 쉬지 않고 지속된다. 매주 새로운 스물 한 두 살의 꽃다운 청년들과 새로운 인연은 시작된다.

지난해 한 훈련병의 이야기를 접하고 몹시 가슴저린 기억이 난다. 이 친구는 입대 전 오랜 기간 사귀었던 애인이 사망한 슬픈 일을 겪었고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항상 의욕이 없고, 훈련 열외 등을 반복하는 실정이었다. 부대 관계자에게 이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자청하였다. 이 병사에게 삼장법사로 친숙한 현장스님과 고창국의 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동남쪽에 자리한 고창(高昌)국은 지금은 폐허가 되어 고성의 흔적만 남아있지만, 한때 서역 최대의 국제도시요 종교 중심지였다. 그곳에 실크로드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현장스님과 고창국의 왕 국문태(麴文泰) 사이에는 아름답고도 슬픈 인연이 깃들어 있다.

현장스님은 629년 천축으로 불경을 구하기 위해 장안을 떠났다. 황량한 사막을 지나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고창국에 당도했다. 신실한 불교 신자였던 고창국 왕 국문태는 현장스님이 당나라에서 온 고승이라는 말을 듣고 법회를 열어달라고 간청했다. 스님은 왕의 간청을 받아들여 2개월간 고창국에서 법회를 열었다. 스님이 고창국을 떠날 때 국왕은 천축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자신의 나라를 찾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뿐 아니라 스님이 인도로 떠날 때 서역 24개국의 왕국에 통행을 허락하라는 조서를 써주고

그림 · 박구원

말 4마리, 부역꾼 25명, 가사 30벌, 황금 100냥, 은 200매, 비단 500필 등을 하사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스님이 떠나는 날 옷자락을 잡고 울며 100리 밖까지 배웅을 갔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현장스님이 불경을 구해 당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고창국에 들러 국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고창국은 이미 현장스님의 모국인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왕 역시 죽임을 당한 뒤였다. 16년의 세월을 보내며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온 현장스님의 위대한 업적은 결국 고창국 왕과의 인연에 힘입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창국 왕의 극진한 후원을 받지 못했다면 현장스님 일행은 십중팔구 사막에서 죽음을 맞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창국은 멸망했지만 현장스님과 왕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사를 반복하는 윤회전생(輪回轉生),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회자정리(會者定離),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자필반(去者必反). 모두 인연의 무한 운행 법칙을 강조하는 말들이다. 따라서 다른 시대, 다른 인생에서 둘은 다시 만나 좋은 인연을 맺었을 것이라는 사유가 충분히 가능하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밖에 있어도 만나고 몇 생애를 돌고 돈 뒤일지라도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 가히 인연의 힘은 생사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병사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먼저 간 여자 친구가 너와 참 아름다운 인연, 좋은 인연이었고 인연의 힘으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기에 산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하루하루 더 힘을 내어 잘 살아야한다고 말해주었다. 다행히 병사는 나의 말을 경청해주었고 한결 표정이 밝아졌다. 그 병사는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자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 인연이 조성되면 반드시 이야기가 생성된다. 군에서 수많은 병사들과 접촉하며, 특히 신교대에서 새로운 훈련병들과 함께하며 옷깃이 스칠 때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부처님과 진실한 인연을 맺게 하면서 행복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매일 밤 고민에 휩싸인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인연들…

아! 다정(多情)도 병(病)인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매일신문사 사장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홑소리, 짓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 잘 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 2014년 3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